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5호 [루계 제26019호] 주제 107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완공  
된 고암-답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  
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간부들인 김용수  
동지, 조용원동지가 동  
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료해운상  
강종관동지, 철도성  
정치국장 김영규동지



어렵고 방대한 공사  
를 자체의 힘으로 훌  
륭히 해제낀 건설자  
들과 과학자, 기술자  
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는 석전만해상철길  
다리를 설계도 잘하  
고 시공도 질적으로  
하였다고 평가하시면  
서 볼수록 흐뭇하고  
자랑스럽다고, 조국의  
동해기술에 또 하나  
의 귀중한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  
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건설에 동

제시하시였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산  
도 떠올리고 바다도 메울 불같은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원된 단위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몇 해전 수산업발전에 유리한 고암  
지구와 답촌지구, 천아포일대에 대  
규모적인 어촌지구를 일떠세우실  
용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행공  
정으로서 고암-답촌철길을 현대적  
으로 건설하는데 대한 전투적파업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산  
도 떠올리고 바다도 메울 불같은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불리한 조건  
과 많은 난관을 사생결단의 의지  
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뚫고  
나가며 석전만의 날바다를 횡단하  
는 해상철길다리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건설함

으로써 우리나라 철길건설력사에  
서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경지를  
도 떠올리고 바다도 메울 불같은  
개척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는 훤갈기 물결만이 출렁이던  
날바다 한가운데 아득히 뻗어 나  
간 철길궤도를 바라보시며 정말  
훌륭하다고, 마치 미술작품을  
보는 것 같다고, 당에서 관심하

던 문제가 또 하나 풀렸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기쁨에 넘쳐  
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  
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

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식으로 창조하고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주체적 힘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였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고암-답촌철길의 완공은 당중앙

혁명열, 투쟁열을 비상히 승화시키고 대로 들어보시였다. 우리로 통계금이 만든것이어서 제집안에 들어온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궁지스럽고 대단하게 어려웠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더 큰 승리에로 출발을칠수 있었고 오늘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흥공세를 벌리며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만천하에 떨쳐가고있는것이다.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헤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남다른 길지와 자부심이 있다. 그 것은 우리 인민이 애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지닌 인민이라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질이 강해서 견하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생생선이며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영웅신들을 낳는 근본원천이다. 이 위대한 정신력만 있으면 무서운 유를 창조할수 있고 언제나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 확신이 천만의 심장을 쿵쿵 뛰게 한다.

우리 천만군민의 정신력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나라이의 자주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생생선이며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영웅신들을 낳는 근본원천이다. 이 위대한 정신력만 있으면 무서운 유를 창조할수 있고 언제나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 확신이 천만의 심장을 쿵쿵 뛰게 한다.

우리 천만군민의 정신력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나라이의 자주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생생선이며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영웅신들을 낳는 근본원천이다. 이 위대한 정신력만 있으면 무서운 유를 창조할수 있고 언제나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 확신이 천만의 심장을 쿵쿵 뛰게 한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남을 믿고 혁명을 한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정신력에 의지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봉도 하여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기의 힘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억척 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세기적인 전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끊임 없이 비약하는 우리 국가의 막강한 주체적 힘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였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견인불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김정은동지께서는 견인불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훌륭히 완공한 건설자들과 일군

본사정치보도반

## 강용한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새로운 승리를!

주체조선이 혁명적인 흥공세, 경제건설대진군으로 번영의 활로를 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에 축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이 전투적구호가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령미루를 향하여 질풍노도는 충진군데오앞에 승리의 합성마냥 메아리치고 있다.

우리 당이 펼친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연속공격이며 당의 결심은 꼳 실천하고 승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는 총돌격전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다시 충돌격전에 나섰으며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우리 천만군민의 정신력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나라이의 자주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생생선이며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영웅신들을 낳는 근본원천이다. 이 위대한 정신력만 있으면 무서운 유를 창조할수 있고 언제나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 확신이 천만의 심장을 쿵쿵 뛰게 한다.

우리 천만군민의 정신력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나라이의 자주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생생선이며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영웅신들을 낳는 근본원천이다. 이 위대한 정신력만 있으면 무서운 유를 창조할수 있고 언제나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 확신이 천만의 심장을 쿵쿵 뛰게 한다.

우리 천만군민의 정신력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나라이의 자주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생생선이며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영웅신들을 낳는 근본원천이다. 이 위대한 정신력만 있으면 무서운 유를 창조할수 있고 언제나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 확신이 천만의 심장을 쿵쿵 뛰게 한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남을 믿고 혁명을 한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정신력에 의지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봉도 하여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기의 힘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억척 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세기적인 전

번파비약의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인민의 정신력을 총동발시켜 창조와 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에 있어 좋은 전망경사, 만리마의 새시대를 탄생시킨 거창한 창조대전이었으며 인민의 정신력을 총동발시킨 영웅적인 대전이었다. 역사의 그 날날 우리 조국땅에서는 세인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자랑찬 승리포장이 디발직으로 펼쳐져졌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이께서는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킬때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몇몇에는 승리는 우리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명도, 그 어떤 어려운 일이든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완찰하는 것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무한대한 정신력이 애안은 고귀한 결실이었다.

부득전에 진행된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적국면을 염이 좋은 전망경사, 만리마의 새시대를 탄생시킨 거창한 창조대전이었으며 인민의 정신력을 총동발시킨 영웅적인 대전이었다. 역사의 그 날날 우리 조국땅에서는 세인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자랑찬 승리포장이 디발직으로 펼쳐져졌다.

그 빛나는 승리는 우리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 명도, 그 어떤 어려운 일이든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완찰하는 것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무한대한 정신력이 애안은 고귀한 결실이었다.

부강조국건설의 제일밀천은 억대의 재부가 아니라 혁명적인 사상으로 무장한 인민의 정신력이다. 이 위력은 혁무기보다 더 강하다. 기적창조의 열쇠도, 대혁신, 대비약도 정신력발동에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을 억제해 걸어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창한 실천으로 확증한 전진이다.

우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대개도간식지건설자들이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미래에 대한 신심과 탄핵으로 넘쳐 환강한 투지와 지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서해갑문에 놓지 않은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낼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힘으로 이땅에 기록해온다.

우리 인민모두를 품에 안아 정신력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기워주시기 위해 비자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실현과 로고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잊지 못한다.

우리 인민모두를 품에 안아 정신력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기워주시기 위해 비자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실현과 로고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잊지 못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견인불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훌륭히 완공한 건설자들과 일군

깊이 새겨주신 숭고한 뜻

해방 후 어느 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황해제철소(당시)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제철소를 돌아보시며 해란도 북구형편에 대하여 물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 일군은 기술기능이 결려 정말 힘들게 북구하고 한 신심을 가지고 대단하게 달라붙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 어떤 환경속에 서도 자기 힘을 가지고 대단하게 달라붙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어려운 일이라도 자체의 힘으로 제철소를 북구운영하여야 한다고, 누가 해주려니 생각해서는 뿐만 아니라 힘으로 힘들어졌다.

그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계로 돌아온다라고 하시였다.



# 혁명의 전위대오, 주력군의 위력을 뛸치며 폭풍쳐 내달린다

원 산 갈 마 해 안 관 광 지 구 건 설 장 에 서

##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란면 산도 땅을 끌고 바다도 매우는 격파관설의 정신으로 조국땅 이르는 모든 마당에 천지개벽을 알아온 것처럼 건설과 대변명기를 펼치는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위 훈을 세워나감으로써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님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격전의 불분초가, 기적과 위훈의 분분초가 흐른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희답하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떨쳐미 용대한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거세한 창조의 기상이 명사십리전역에 새겨져 나래친다.

흐르는 날과 날을 주름잡으며 짙푸른 것은 군속도, 단숨에의 공격속도를 창조해 가는 군인건설자들의 혁혁한 위훈앞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진다.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하랴. 수수 천년 짐들었던 모래불우에 경쟁적 으로 솟구친 수십동의 건축물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맨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옥련용사들의 군상처럼 안겨온다.

이 파병이 현장방송을 통해 온

공사장에 전해지고 또 하나의 경

### 조선인민군 김영근소속부대

전투현장에 가보면 혁명적당군의 투쟁기질과 본래로 물조공사원봉의 승전포성을 제일먼저 떠올린다. 이곳 부대장병들의 충천한 기세를 뚜렷이 염두에 두었다.

파여 그 어떤 힘이 만리마속도 창조의 승리를 더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군인대중의 혁명 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인민군

대의 참신한 현장정치사업에 대해 전한다.

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의 공사실

적과 함께 하루사업의 중요한 고

리로 전해되는 정성적인 일파가

있다. 현장조건에 맞게 벌어지는

문답식기술경연이다.

이 경연에는 부대의 모든 지휘관, 병사들이 참가한다. 지명된 지휘관, 병사들은 현시기 제시된 당

정책적문제들에 대해 대답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인식상태에 대한 평가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연단에 나선 참가자들은 학습내

용과 결부하여 당의 구상과 의도

대로 원활히 연계해온 기관

를 당시에 헤아려온다. 그리고

창조적지혜는 이렇게 기발한

착상을 낳았다.

전투장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유류자재수집함도 이곳 부대장병

들의 애국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한국의 철근, 한조각의 철판이라

도 훌륭한 나라의 재부로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드리운 애국적정

을 당이 정해준 기간에 당시에 바라는 높이에서 끌낼 충정의 결의를

된다.

이 파병이 현장방송을 통해 온

공사장에 전해지고 또 하나의 경

### 현지 보도

## 시간이여, 우리를 따로라!

### 자취숙소 - 4호동 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우리 혁명의 제일선에서 전진의 힘과 기운을 전하고, 창조적지혜를 발휘해온다.』

우리는 지금 자취숙소 - 4호동의 만장수에 서 있다.

거창한 건설장의 전경이, 몇 달간 치러온 전장도에 딛기며 있던 판광지구의 용건한 자태가 가슴벅차게 안겨온다.

곳곳에서 건설장을 형성하며 솟아오르는 봉사건물들, 인공호수주변에 일떠선 수십동의 배흘속들...

위험장조에 부르는 현장방송에 충원의 친한 목소리, 맞들이를 들고 달리는 군인건설자들의 동

음, 여기저기서 울리는 호각소리와 전동다짐기들의 동음을 떠나온다.

공사장의 전경을 배경으로 긴 활을 창고높이 뻗친 어여대의 기증기자들이 연방 물동을 끌어 올린다.

이웃한 건물의 꼭대기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기증기운전공에 세 신호기발을 흔들며 목적한 끝으로 물통을 안내한다.

기본골조가 완성된 건물벽체에서는 건설자들이 투쟁기세도 만만치 않다. 용접면을 쓴 군인건설자들이 용접불꽃을 세차게 날린다. 다음복을 끌어쓰고 걸

싸게 일하는 군인건설자들도 보인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곳 부대지휘관을 만났다.

『저 동무들이 부대적으로 소문난 혁신자들입니다. 혼련이면 혼련, 투톱조끼이며 투톱조립, 미장이면 미장 어느 하나 막하는데가 없는 만능병사들입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단숨에!』』

그의 말을 증명하듯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속보들이 연방

### 군인건설자들

모두의 심장이 하나의 지향, 하나의 열망을 안고 세차게 높뛰는 가운데 전투현장에 경쟁도표가 나

놓고 부대별 사회주의 경쟁바람이

세차에 일어번진다.

시간마다 불은 줄이 쭉쭉 오르고 있다.

옹감한 돌격투수들의 불리는 충

정과 끊거는 열정, 무에서 유를 창

조하는 피어운 체위가 승부에 있는

붉은 줄들이 살아숨쉬는 생명체와

도 같이 우리의 기세를 울리며 승

리의 적선주로 마냥 새겨진다.

돌지는 공사장 그 어디에 가보

아도 좋다.

강한 복소속부대 장병들이 단계

별사회주의 경쟁에서 3연승의 기

록을 세울 때 배명관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은 방대한 저유지공사를

불과 3·8간판에 완성하고 전투

하고 있다.

지휘관, 병사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이토의 기수, 쟁풍기 되어 톨

격과 끝을 막을 힘은 그 어디

에도 없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

리가 다 끌어는 구호를 높이 들고

폭풍에서 내달리는 우리 혁명의 전

위대도 주역군인 인민군대의 투

쟁기풍을 보라.

그들의 일분세를 따라 용감하

고, 맹렬히 전진해나갈 때 광공의

남은 더 빨리 앞당겨질 것이다.

나쁜는다.

서로 이웃한 작업장을 차지한 군인건설자들이 경쟁적으로 일

손을 다친다.

『남들이 뛰면 우리는 날자!』

곳곳에서 이런 불같은 웨침이 울리는 가운데 공사장의 숨

결은 더욱 높아가고 웅장한 건

축물들이 시간마다 그 모습을

일상화한다.

세계를 향하여 질풍노도는

주제조선의 기상이 세 차례에 악

동하는 원산갈마해안판광지구

주요전구마다에서 끌어온

돌풍조끼며 인민을 위한 일에

서 만족을 모르고 언제나 앞

장에 서야 합니다.』

이곳 부대장병들이 방대한 건

물물조공사에 진입한 것은 지난

3월 중순이었다. 그때로부터 두

달도 안되는 기간에 이들이 기록

한 공사실적은 참으로 대단하다.

작고조끼를 끌어낸다.

『작고조끼는 군인건설자들의

기상이다.』

시간마다 그 모습은

단숨에 끝난다.

시간마다 그 모습은

# 태양의 빛발따라 전진하는 총련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기 수령과 조국, 자기 민족에게 끌어들이 충실했던 애국적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애국 유산이며 모친 고난속에서도 신념을 변치 않고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걷고 있다. 총련동포들이 애말로 참다운 애국자를 적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꽂아 걸어온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애국 유산이며 모친 고난속에서도 신념을 변치 않고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걷고 있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조국인민들은 청년세대인들의 열화 같은 밀음과 숭고한 동포애, 새일동포들의 고결한 애국충성으로 수놓아진 총련의 자랑스러운 로정을 돌이

본사기자 허영민

##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동포애가 스며있는 주체조선의 귀중한 재부

재일조선인운동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평도파와 해외교포운동의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해온 주체의 애국운동이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70성상의 자랑찬로정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보시고 언제나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여온 총련일군들과 새일동포들의 애국충성의 자축도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수령의 사상과 평도는 총련의 존재와 활동의 제일생명선이며 필승불패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는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이며 파악적인 사상과 리론을 당시하고 주체조선인운동에 힘입어 더욱 치밀하게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발발근원과 본질은 학제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새일동포들은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높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재일조선인운동에서의 성격에 맞는 로선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하여 생사의 갈등에 놓였던 시기에는 조선사람은 비록 일부분에서 살더라도 자기 조국을 용호하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은 철저히 공화국정부의 평도길에 차세의 주체적역량에 의지하여 민주주의 적민족전선을 지키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적인 국운운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평도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총련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위력하고 자랑스러운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으로 자라났다.

총련은 결성된 첫날부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사상체계, 평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을 조직건설의 기본으로 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성성에 기초한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내외반통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응호고수하고 고귀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부지부진으로서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

이어가면서 재일동포들에게

제일조선인운동에서 나감으로서는 총련과 새일동포들에게

#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경이적인 사변

여러 나라 단체들 성명 발표, 행사 진행

역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을 축하하여 여러 나라 단체들이 4월 28일 3일까지의 기간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백두산 제3회 조선 천선 협회는 김정은 동지께서 북남수뇌상봉을 통하여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은 매우 경이적인 사변이다. 그이의 명도길에 조선민족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포스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탐구를 위한 국제선전발기는 전보적인 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판문점선언은 조선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려는 김정은 평도자의 정력적인 활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슬란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철선협회는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안아오신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업적은 실로 거대하고 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에 벌입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성명하였다.

몽골평양주체사상연구원군동행은 북남수뇌상봉은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이르게 된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평양조선선전협회는 조선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놓은 판문점선언에 지지 표명하였다.

일본 도쿄에서 북남수뇌상봉께서 손을 잡으시고 판문점선언을

접분리선을 넘으시는 모습은 말그대로 대결의 상장을 평화의 상징으로 비우고 화해와 통일에 나가려는 의지를 내외에 파악한 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 \*

제3차 북남수뇌상봉을 축하하여 네

팔, 나이제리아에서 현대성모임, 영화

감상회들이 4월 28일부터 5월 3일

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들은 서는 역사적인 판문

점분리선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가

상영되었다. 행사를 네 할기자협회,

네랄선전선협회, 이나제리아 라

고스에 있는 대율라제고에 주식회사, 킹

파워드 너성 및 아동병원을 비롯한 어

려 단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네랄에서 진행된 런데 성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열화 같은 민족애를 지니

시고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여 조

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통지의 불멸의

공적을 높이 찬양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 외에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께서 조국 주민, 시내와

역사상에서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을

네랄인민들 속에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에 대한 결

정들이 체택되었다.

그들은 북남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뿐 아니라 세계

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도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선언이 절저히 허행되

여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대율라제고와 인민들의 한

결같은 의사이다. 하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나라 보건대표단장

### 세계보건기구총회 제71차회의에서 연설

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보건체계는 성별과 나이, 직업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의료봉사를 보장하여 주민 한 사람으로 전반적인 평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김정은同志께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통지의 불멸의 공적을 높이 찬양하였다.

나이 세리의 어려운 인사들은 김정은同志께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세계적호흡을 주도해나가신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조선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북남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도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선언이 절저히 허행되어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대율라제고와 인민들의 한 결같은 의사이다. 하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대화를 지지하며 대결을 반대한다

### 영국, 스위스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현 할증전투훈련은 평화에 대한 국장으로서 그와 관련한 주제사상연구소조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려놓은 현 할증전투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도발적인 도전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군사적 전쟁을 강제하기 위한 철학에 성의를 보여 준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부분에 대한 국가 예산은 그 전

해에 비해 113.3%로 증액되었으

며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105.1%로 장성되는 국가 예산

지출에서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

로 3%로 늘어난다.

국가경계발전 5개년 전략수행

의 세부제를 분석해온 결과로

제작된 국립생명공장을

현지화도시화하면서 의약품생산

을 정상화하고 제약공장을 확대

하는 계획이다.

우리는 보건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력자강과 과학적

기술, 인적자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이번 협약은 미제가 피드는 「평화화정」이 원전 한 거짓임을 실증해준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이 현 할증전투훈련을 당장 중지하고 대방에 대한 일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도 이곳난다.

【조선중앙통신】

은 심상치 않다.

미국은 조국경부근에서 생물무기사고와 관련한 철학을 실질성을 내고 있는데 대체 우여하고 있다. 미국이 이전 쏘련형들에게서 그려낸 군사생물학 연구를 진행하는 진짜목적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근거가 있다.

이것은 얼마전 로씨야와 무성으로 무기통제분야에서 서의 미국의 각종 위반행위들을 깨닫는 론평에서 지적한 내용의 하나다. 라이브는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생물무기개발책에 국도의 경계감을 풀고 있다.

지난해 10월로 쇠아의 뿐 전대통령이 미국의 생물무기기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당시 어느 한 회의에서 그는 일부 외국인들이 로씨야방안의 각이한 민족들과 사람들에 대한 생물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특수기판들이 목표로 풀고 있다.

미국은 생물무기지제도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2016년 1월에 스위스의 세비제에서는 생물 및 독성무기 규제협약의 발효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미국은 고의적인 방해로 2017년~2020년 사업계획이 체택되지 못하였다. 이전에 미국은 이 협약의 구체적인

【조선중앙통신】

계속되는 이스라엘군의 탄압만행

도 이스라엘군이 총총란과 최루가스에 맞아 56명의 시위자

가 부상당하였다. 부

【조선중앙통신】

# 해외침략의 길로 내달리는 전범국가

최근 일본 특성상 「자위대」와 해상

부대인 수륙기동단과 해상 「자위대」

&lt;p